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믿기 힘들시겠지만 대학에 들어가며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과에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곳은 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것은 오래지 않았습니다. 순진했던 것일까요?

주님의 부르심 따라 목회의 길을 걸으며 가장 힘이 들었던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것 같은 모습들, 주님을 이용하는 듯 보이는 모습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모습으로 인해 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던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교회 계단을 내려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 너도 사랑할 수 없겠니?” 묻는 음성을 듣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한 마디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받을만한 자들을 사랑해 주세요. 주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라고 반문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아무 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처음 베드로를 만나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And he brought him to Jesus. Jesus looked at him and said, **"You are Simon son of John. You will be called Cephas"** (which, when translated, is Peter). - NIV / 요한복음 1:42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이미 꿈꾸고 계셨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될 것을 꿈꾸고 계셨습니다. 마치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어떠한 모습으로 자랄지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베드로를 꿈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시몬은 베드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저 천국을 향한 순례의 걸음을 걸어야 함을 압니다. 하지만 그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은 그저 버티는 시간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자라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1-3절

1.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2.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작년 해외선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섬길 교회가 그 황폐한 땅에 세운 '의의 나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저 작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임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황폐한 땅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의의 나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4-6절

4.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5. 외인은 서서 너희 양 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6. 오직 너희는 여호와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이들을 통해 지금도 아름다운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떼어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할 때 자라가며 자라가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더욱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하게 세워지고 확장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이미와 아직 사이를 묵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삶은 주님이 부재하시는 시간이 아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돌보고 계시는 시간,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시간,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시간, 눈물을 지나 기쁨을 선포케 하시는 시간입니다.

또 한해를 우리는 시작했고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직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이미 하지만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자라나 이 황폐한 땅에서 아름다운 숲을 꿈꾸며 걷는 의의 나무로 함께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이 많은 곳이 오히려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함께 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공식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런 기대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안디옥교회가 부흥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웠던 것처럼(행 11:26)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곳이기를 기도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주님의 기대대로 우리가 걸어갈 때, 이 소망은 우리를 통해 실현될 것입니다.

찬송가 425장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노래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